

3월 중순쯤 도반들과 함께 정리도네 있는 집에 갔다가 집 입구에서 팔고 있는 담귀 두 다발을 샀다.
 겨울을 막 지낸 담귀는 새 울음 소리만 하나쯤 퍼우고 있었지만 그 울음 팔려 나오는 과정에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여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그러져 있었다.
 집에 온 나는 담귀를 손질해 체반에 넣고 그중 새끼를 골라 담귀 유리병에 담아서 배란다에 놓아 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이게 웬일인가. 유리병에 담아 놓았던 담귀는 짓이겨진 울음 밑채내고 파릇 파릇한 새끼를 새끼새 피우고 있지 않은가.

‘합의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인증캠페인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란 것은 어린 시절 마당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담귀일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한달 반쯤 지난 지금은 송금송금한 꽃망울이 맺힌 꽃대가 세 개나 올라오고 있다.
 나는 요즘 배란다에 놓여있는 담귀를 보면서 생명의 대한 감동으로 전율하고 있다.
 진흙투성이의 담귀꾸러미를 손질할 때만 해도 나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



남지심

담귀꾸러미서 배운 생명관

만 그것은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였고 그후엔 자신을 존재시키고자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담귀를 보면서 우주가 싸고 있는 생명력을, 개체에 내재해 있는 생명력을 가슴깊이 실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바로 스스로를 존재시키고 아름답게 꽃피우고자 하는 열망임을 알고 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모든 사람, 사람뿐 아니라 갖가지의 동물이나 식물, 산이나 내, 무생물이라고 믿고 있는 돌이나 광석까지도 그 속에 이러한 열망이 내재해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열망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꽃피어나도록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 속의 불성(佛性)도 드러날 것이다.
 불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무지, 내가 정말 참회하고 싶은 것은 아만과 편견으로 뒤덮인 나의 무지다.
 (소설가·'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apia.com
108배로 EQ교육 19년 **고려불화 133점 한눈에** 9년 **의상 '일승발원문'全文발견** 15년

경천사지 10층석탑 복원 가능성 '의문'

“손대면 부서질듯 위험”

문화재연구소 “원형 복원 자신있다”

경복궁내에 있다가 훼손방지를 위해 해체된 경천사지 10층석탑(국보86호)의 복원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 조성된 이 석탑은 재질이 대리석인데다 일본으로 약탈당했다가 반환되는 등 이점으로 인해 심하게 마멸되어 95년 5월 살내로 옮기기 위해 해체돼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원)에서 보존처리하고 있다.
 경천사지 10층석탑에 대해 복원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해체시킬 수 없는 것을 무

리하게 해체해 다시 재건하기가 무리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문화재위원은 “석탑을 고정시키기 위해 삽입했던 시멘트 석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훼손이 있었다”며 “석굴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해체복원과 살내로의 이전은 경천사지 석탑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연구소 김동원소장은 “지난 94년 대리석 문화재 전문가 칼로제로 배란 카고수(이탈리아 로마대)에게



○지난 1일 조계종 원로회의를 예방하고 있는 태극 불타담마센터 남전수행단.

태극스님 사찰 순례등 두타행

남전수행단 19명 방한
 태극 불타담마센터(주지 아산 차요) 남전수행단 19명이 4월 30일 내한, 21일까지 삼보사찰을 중심으로 탁발, 오후불식, 노숙 등 두타행을 실시한다.
 불타담마센터 수행단은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예방, 조계사 참배를 시작으로 경주 불국사, 합천 해인사, 승주 송광사 등 10여 사찰에서 탁발과 노숙, 오후불식 등의 행각을 하며 남전불교의 두타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14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송광사를 방문,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참여하고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본원을 갖고 있는 불타담마센터는 남전불교의 계승과 극기, 절제, 기율적 승단생활을 체험하는 수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행단은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만에서는 팔리에불과 계율을 배웠으며 4월 15일부터 29일까지는 태국에서 비구계를 수지하는 등 9년동안 두타행을 계속해오고 있다.

중정 사퇴철회 간청

해암·월주·설정스님 등
 조계종 원로회의의 의장 해암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원로의원스님들은 4월29일 총도사로 월하스님을 예방하고 중정사퇴의사 철회를 거듭 간청했다.
 이에 월하스님은 “사퇴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개혁종단 출범

옥수수 1380톤 북에 직접전달

조계종, 자비탁발 2억원으로 구입
 북한동포들을 위한 옥수수 1천3백80톤이 북한에 직접 전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4월 30일 중국 단둥역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옥수수 1천3백80톤을 23량의 화차에 나누어 선적, 신의주까지 운송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사외부)은 “이날 전달된 옥수수는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의 탁발을 통해 모금된善款 2억원으로 구입한 것이다”며 “앞으로 방생대법회善款과 봉축행사 기간동안 모금된善款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달된 옥수수 1천3백80톤은 북한주민 10만여명이



‘꽃탑’
 3월 개막된 97 고당 세계 꽃박람회장을 장식한 꽃탑. ‘꽃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18일까지 개최되는 꽃박람회 기간중 불교홍보관이 설치되고, 12일(오후3-6시)에는 불교전통의식 영산재가 참엄하게 펼쳐진다. 같은날 오전에는 관물식도 봉행된다. (고당·고명애 기자)

‘꺼지지 않는 등’ 밝힙시다

2541개 법보시 등 공양...1구좌 1천원
 부처님은 왜 이땅에 오셨을까요. 예토를 정토로 만들기 위해 사바세계에 나부신 부처님의 정생 500대인(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특집을 통해 ‘500대인’의 뜻을 되새기며 군부대 고도소 등에 법공양하는 ‘작은 등 밝히기’를 전개합니다. 1구좌당 1천원으로 올해 불기년도에 맞춰 2541명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심을 봉축하면서 인도의 가난한 여인처럼 꺼지지 않는 등공양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구좌 1천원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하셔도 됩니다)
 ▲마감: 1997년 5월 8일
 ▲집수: 현대불교신문 (02)722-4162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 송금후 반드시 전화연락 주십시오.
 * 동참자 명단은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문(127호)에 게재됩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
 5월 - 대흥사·일지암 [사고 3면]

캔속에 든 천연조개 속에서 직접 진주를 채취해야만 목걸이가 완성됩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불자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같이 오색 찬란한 빛깔을 지니고 사리와 같은 능력을 지닌것은 오직 희망진주 뿐입니다.

‘96 미국 히트상품

희망진주(사리)를 몸에 지니면 행은 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직접 조개를 열어 진주를 꺼내 목걸이에 끼워주세요

1. 캔속의 조개 2. 캔속의 조개를 열고 조개살을 꺼내 진주를 채취합니다 3. 진주를 꺼내 목걸이에 끼워주세요 4. 완성

희망진주 목걸이. 이렇게 완성하십시오.

① 먼저 캔을 열어 ② 캔속의 조개살을 열고 조개살을 꺼내 진주를 채취합니다 ③ 꺼낸 진주를 목걸이에 끼워주세요 ④ 완성

· 캔속에 들어있는 4년된 천연조개에서 직접 진주를 채취해서 목걸이에 끼워 선물하는 진주조개목걸이라면 받는 사람도 깜짝 놀라겠지요
 · 진주는 건강, 장수, 부귀, 순수의 상징임

종류	95% 순은+18K 금도금	95% 순은+백금도금	14K GOLD
하트	39,000	39,000	88,000
연꽃	39,000	39,000	79,000
동고래	36,000	36,000	69,000

· 구성: 희망진주 1개 + 메달 + 체인 + 소책자(희망진주이야기)

大福通商株式會社 서울631-0411(代) 부산(051)558-3355